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후 가입률 2배↑

국가제도 활용으로 노후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성과'
보험료 1인 3만6000원 지원
시행 후 가입률 2배 증가해
18%서 2020년 41%로 상승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러 사업 가운데 특히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보험제도는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계한 대표적인 노후복지 제도이지만, 지난 2011년 파악된 조계종 스님들의 가입률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스님들의 불안정한 주거지와 소임, 소득 특성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스님들이 행정적으로도 노후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종단 스님들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구축한지 5년이 지난 현재,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1%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종단 분한신고 기간 중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답한 스님은 응답자 5000여명 중 18% 수준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이 94%, 비정규직 노동자가 42.8%라는 점에서, 단순비교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스님들이 안정적인 소임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가 소수인데다가, 주거지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실상 스님들의 이 같은 특성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만65세 이후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수령액이 조정 지급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노후생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다. 때문에 스님들의 저조한 가입률은 곧 국가의 사회보장 체제에서 소외된 비율을 드러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스님들의 노후복지 예산 체계에서 종단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승려복지회가 종단 스님들의 노후복지 일환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보험료 지원 계획을 공표하고 지역가입자 1인 기준 3만 6000원을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3만 6000원은 스님들의 월평균 소득을 40만원으로 산정해 지역가입자 보험요율인 9%를 적용한 액수다. 2017년 30%인 1만 800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 비율을 높여 현재 1인 3만 6000원 지원체계를 안착시켰으며, 상·하반기 재적 교구본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재원도 종단과 교구본사가 반반 부담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전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1%로 2011년 18%에 비해 3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화엄사와 송광사, 대흥사 등 일부 교구본사의 경우 50%를 넘어서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확인됐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스님은 2963명이며, 1인 3만 6000원 기준으로 총 2억 4423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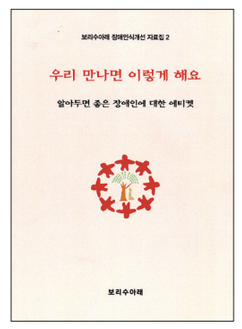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승려복지회는 국민연금보험공단과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정소득 이하 수준의 스님들도 연금보험에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졌다. 스님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저조할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한 것.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보험공단은 관련 부처에 "조계종 승려의 경우 신분상 특수한 생활환경과 수행공동체 생활 등으로 인해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이 있다"며 "조계종이 요청한 바와 같이 소속 스님이 국민연금 가입을 신고할 경우 적정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되, 신고 소득이 낮다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공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상당수 스님들이 출가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는 점에 착안해, 추납제도에 대한 안내도 지속하고 있다. 추납제도는 1회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스님의 경우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해 추가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차장은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미 가톨릭과 원불교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보험료 지원에 나선만큼, 스님들 역시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향한 일방적 친절, 배려일까?

보리수아래, 에티켓 안내서 발간



사찰 계단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넘어진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인 도반과 함께 음식점을 갔을 때는 어떤 도움을 줘야할까? 무조건적인 친절은 배려일까 편견일까?

장애인을 만났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도 편견이나 참견으로 보일까 우려되어 고민한 경험이 있는 불자들을 위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우리 만나면 이렇게 해요,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사진〉은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선보인 장애인인식개선자료집 2탄이다. 장애 종류별, 상황별 마주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에티켓을 소개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도움의 방법 등을 담았다.

자료집은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유형, 장애인 등록 및 심사제도 등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부터 각 장애유형별, 상황별 만다는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을 소개한다.

계단과 턱에서, 계산대에서, 교통수단에서, 음식점에서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은지 구체적인 상황설명부터, 휠체어 장애인과의 대화, 장애인을 초대할 때,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과의 대화, 응대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15개 장애유형별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지침을 소개함으로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에 따르면 장애인을 만났을 때 무조건적인 친절이나 의사 확인 없는 일방적인 도움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뜻한 친절과 배려는 장애 특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에 기반한 가운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설명이다.

보리수아래는 더 많은 불자들이 장애인과 스스럼없이 함께하는 도반이 될 수 있도록 에티켓 책자를 전국 주요사찰과 불교단체, 언론사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최명숙 대표는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이 아직 부족해 장애인을 만났을 때 다소 어색하고 거리감을 느끼며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기도 한다"며 "에티켓 자료집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송지희 기자

올해 마스크 지원만 40만장…사각지대 해소 앞장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방역나눔 '주목'

30여 단체·기관 통해 지원
전체 95% 가량이 후원연계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심각한 방역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가운데, 천태종 산하 단체 나누며하나되기가 지속적인 방역물품 나눔으로 소외이웃을 향한 자비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올 3월까지 27회에 걸친 자비나눔활동으로 사회 곳곳의 소외이웃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마스크 파동 등으로 방역물품을 구하기 쉽지 않거나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방역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더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나누며하나되기는 2020년 2월 안산과 인천 등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미얀마와 방글레데시, 베트남 등 국내 다문화 법당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해 이주민들의 감염 예방을 도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남부보훈지청, 대구광역시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주민 등은 물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단양군 일대에서도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한해 동안만 총 15회 나눔이 이어졌으며,



마스크 전달식 기념촬영 모습.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지원받은 단체와 기관, 계층은 30여곳 이상, 마스크 3만장 등 2억 8000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방역물품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불과 3개월만에 12회 나눔활동을 전개했으며, 마스크 공급이 풀리면서 지원규모도 대폭 늘어 이미 3억원 상당의 방역물품이 전국 각지의 소외이웃에게 전달됐다. 마스크만을 기준으로 하면 40만장 규모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 같은 활발한 나눔활동의 95%가 후원연계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마스크 제작업체는 물론, 인연이 닿는 불자와 기업, 단체 차원에서 나누며하나되기를 통한 후원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는 불교와 무관한 업체도 상당수 포함돼 종교를 넘어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서, 공공성과 신뢰감을 확보한데 따른 성과라는 분석이 많다.

진창호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라며 "4월부터 부처님오신날 주간까지 이미 20회 가량의 지원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 캠퍼스 명칭 변경 추진

미래지향적 이미지 추구
이사회 후 5월 결정키로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캠퍼스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1984년 경주대학을 개편하며 경주캠퍼스로 명칭을 개칭한 이래 다시 명칭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학생, 동문, 교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캠퍼스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홍보전략위원회가 담당하는 이번 명칭 공모는 △한정된 지역 이미지 탈피 △글로벌·글로컬 캠퍼스로의 비전 △미래지향적 이미지 △불교 건학 이념 반영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이는 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관계자는 "캠퍼스명을 바꾸자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라며 "최근 지방대학 위기가 고조되면서 본격적으로 캠퍼스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사전조사를 통해서도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학교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내부 공모 이외에도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명칭 변경 확정·발표는 법인 이사회와 교육부 승인을 거쳐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캠퍼스 관계자는 "경주캠퍼스는 오래된 이미지가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변경된 캠퍼스명은 2022년 수시입시부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1년도 상 반 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 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2. 결계는 지원 신청 당시 결계를 필한 경우 지원, 이후 결계를 누락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3.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 '승려복지' 양식 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유의사항
1. 기지원자는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미제출시 지원금이 중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에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으로 변경, 납부종료, 납부중단한 경우** 조계종 승려복지회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02-2011-1980~1, 1726~7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5(2021)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 곡

승려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 구족계 수지 후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스님
-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제외
-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승납, 세납에 상관없이 종단의 모든 스님들은 **매 안거때마다 반드시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승납 40년 이상 참석 예외)에 참석**해야 합니다.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을 시 승려복지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종류
■ 입원진료비 :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지원(퇴원 후 1년 이내 신청에 한함)
-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 분당, 경주)은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치료비 전액
- 일반병원은 급여(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외래진료비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치과 보철비 : 만 65세 이상 스님의 임플란트, 틀니 보철비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분)

※ 미용 및 보양목적 입원진료비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사재료비, 촉탁의 진료비, 재가요양비지원(공단 급여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지정 또는 종단 소속사찰·스님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이용 시

■ 국민건강보험료(일부지원) :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 지원
- 동국대, 중앙승가대 재학 중으로 학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스님
- 비구니 대중수행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스님 (금련사, 법계사, 해인사 자비원 등)

■ 국민연금보험료 : 지역가입자 1인당 월 36,000원 정액 지원